

사업회 소식

'지학순 정의평화기금' 수상자 사업회 방문



지난달 21일(화) 스리랑카의 인권운동가 룩산 페르난도가 사업회를 방문했다. 룩산 페르난도는 제 12회 '지학순 국제정의평화상' 수상자로 스리랑카 내전 중에 벌어진 인권유린 실태를 고발해 온 대표적인 인권운동가이다. 이날 룩산 페르난도는 사료관의 민주주의 사료 등을 관람하고 사업회 함세웅 이사장, 유영표 부이사장과 만나 자국의 비민주적인 현 상황에 대한 어려움에 민주주의를 먼저 이룬 한국 국민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요청했다.

사업회 임직원 4·19혁명 기념식 참석



지난달 19일(일) 오전 10시 서울 수유리 국립4·19묘지에서 열린 4월혁명 49주년 기념식에 사업회 함세웅 이사장, 유영표 부이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40여명이 참석하였다.

사업회, '세상을 바꾸는 아름다운 동행' 캠페인 동참



사업회는 창간 15돌을 맞는 <한겨레21>이 시민사회단체와의 상시적인 연대를 위해 벌이는 시민·사회단체 후원 캠페인 '세상을 바꾸는 아름다운 동행'에 함께 한다. 이 캠페인은 독자들이 시민·사회단체를 통해 <한겨레21> 정기구독 신청 시, 구독료 20% 이내에서 독자의 이름으로 해당

단체에 회비나 후원금을 적립해주는 방식이다.

이 캠페인에 참여하는 단체는 사업회를 비롯해 페어트레이드코리아, 한국공정무역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참여연대, 공공미디어연구소, 진실을 알리는 시민들, 여성환경연대, 녹색연합 등이다. <한겨레21> 공식 블로그(h21blog.hani.co.kr)에서 독자들이 손쉽게 자신이 후원할 단체를 지정하고 정기구독 신청도 할 수 있다.

2009 청소년 민주주의 역사캠프 개최 진행



교육사업팀은 (재)5·18기념재단·(사)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와 공동주최로 이달 23일(토)부터 24일(일)까지 전국 200여 명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2009 청소년 민주주의 역사캠프'를 진행한다.

1980년 5·18민중항쟁이 일어났던 전남 광주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청소년 민주주의 역사캠프'는 금남로, '국립5·18민주묘지', '5·18자유공원' 등 5·18민중항쟁의 현장을 둘러보고, '5·18청소년문화제', '5·18체험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다. '5·18청소년문화제'에서는 5·18민중항쟁뿐만 아니라 부마민주항쟁, 6월민주항쟁 등과 관련된 한국 현대사 사진전을 개최하여 청소년들이 한국현대사의 장면들을 직접 보고 느낄 수 있도록 하였다.

지난 2003년부터 시작되어 매년 5월에 개최해 온 청소년 민주주의 역사캠프는 해마다 서울, 경기, 부산 등 전국 각지에서 300여 명의 중·고등학생들이 참여해 왔다. 해를 거듭할수록 사적지 답사, 묘지 참배 등 수동적인 참가에서 '5·18청소년문화제' '청소년이 말하는 5·18' 등 능동적인 참여 프로그램으로 바뀌어 가고 있으며 이에 따른 참가자들의 호응도 높아지고 있다. 자세한 문은 교육사업팀(02-3709-7623)으로 하면 된다.

주민아카데미사업 순천 탐방

교육사업팀은 지난달 24일(토)부터 25일(일)까지 '2009년 주민아카데미사업'의 일환인 제 1차 풀뿌리운동 현장 탐방을 전남 순천에서 진행했다.

참가자들은 모듬별로 중앙동의 <천태만-想>지역, 어린이 도서관이자 지역아동센터인 <작은나무 아이들>, 장천동 주민자치위원회가 운영하는 지역공동체사업체인 녹색실버가게, 그리고 순천YMCA가 운영하는 사회적기업인 <행복한 밥상> 등을 방문하여 관찰하고 운영자들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그리고 순천시 우리 동네 상상프로젝트의 주역이라 할 수 있는 김석 간사(순천YMCA 부장), 양효정 씨(순천시 자치행정과 7급 공무원), 그리고 이원근 교수(순천시 살기좋은지역만들기 추진위원장)와의 집단토론을 통해 서로의 생각과 느낌을 공유했다.

전국의 풀뿌리운동 활동가 30여명이 참가한 이번 현장 탐방 사업은 활동가들에게 '다른 지역의 상황을 이해하여 우리 지역에서 할 일을 찾는 데' 도움이 되고자 기획되었다. 이번 현장탐방은 비교적 널리 알려진 순천의 사례를 좀 더 깊이 있게 들여다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사업회 소식

현대사 교사연수 진행



교육사업팀은 지난달 25일(토)부터 26일(일)까지 1박 2일 동안 서울유스호텔, 현대사 유적지에서 전국의 초·중등 교사들과 함께 현대사 교사 직무연수를 진행했다.

첫 날은 한국근현대사 수업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들을 짚어주는 특강, 초등학교생들과 함께하는 현대사 수업사례와 사료정보 콘텐츠를 활용한 중등 수업사례를 나누고 둘째 날은 서울유스호텔, 명동성당, 서대문형무소, 서울광장 등 현대사 유적지와 평화박물관, 사업회 사료관을 탐방했다.

살아있는 현대사 수업의 활성화를 위해 마련한 이번 연수가 참여 교사들이 현장에 돌아가 올바른 역사인식을 지닌 민주시민을 길러내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

대한민국청소년의회 4대 선거 실시



교육사업팀에서 진행하는 대한민국청소년의회가 이달 1일(금)부터 31일(일)까지 한 달 동안 4대 구성을 위한 선거를 실시한다. 후보등록과 투표는 모두 대한민국청소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진행되며 시도별 인구비례에 따른 지역대표 60명과 청소년 단체 등에서 활동하고 있는 부문대표 20명을 선출한다.

선출된 청소년의원은 의원연수를 시작으로 2년 동안 정기회의, 입법청원, 캠페인, 토론회 등 다양한 활동을 하게 된다. 만 13세~19세의 대한민국 청소년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이번 선거에 아름다운 대한민

국을 꿈꾸는 많은 청소년들이 참여하기를 기대한다.

상세한 내용은 대한민국청소년의회 홈페이지(www.youthassembly.or.kr)에서 살펴볼 수 있다.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청소년의 민주주의 실천의지 함양을 위해 대한민국청소년의회를 공동주최하고 있습니다.

주민아카데미 사업 '주민리더교육' 개최

교육사업팀은 지난달 24일(금)부터 25일(토)까지 1박 2일 동안 등대생협협의회, 서울대 평생교육연구센터와 공동으로 주민리더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이 프로그램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심화 발전과 주민리더 양성을 위해 펼치는 2009년 민주시민교육 주민아카데미 사업의 일환으로 경기도 지역 생활협동조합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주민리더 25명이 참가했다. 특히 24일(토)에 열린 첫 번째 강좌는 참가자들이 주민 리더로서의 정체성을 생각해 보고 교육을 통해 성장하는 학습리더로서의 비전을 찾기 위한 '시작여행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다. 이후 주민리더교육은 6월까지 총 9강좌에 걸쳐 서울대학교 사범대 강의실에서 ▲지역활동의 경험에서 찾는 자기 정체성 ▲민주시민교육의 관점에서의 생활협동조합 활동 재조명과 학습리더의 비전 ▲학습리더로서의 강의방법론 개발 등의 주제로 꾸며질 예정이다.

'4월혁명 사료총집' 발간기획위원회 구성



사료관은 지난달 10일(금) '4월혁명 사료총집 발간기획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을 시작하였다. 서중석 교수를 위원장으로 하여 정해구, 정근식, 김동춘, 박명림, 홍석률(이상 교수), 박문숙 사료관장 등 7명의 전문교수단으로 구성된 발간기획위원회는 내년 총집이 발간될 때까지 활동하며 매월 1회 이상 정기회의를 통해 총집 발간 내용, 수록 대상 사료 범위, 조사팀 활동 지휘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실무조사팀을 구성·운영하여 4월혁명 당시 국내뿐만 아니라 미국 국립기록청·언론사 등 국내외 산재한 4월혁명 사료를 조사·수집하여 집대성하는 작업도 진행한다.

2010년 4월혁명 50년을 대비하여 2년에 걸쳐 진행될 이 사업에서 올해는 발간을 위한 총괄적 기획과 사료조사·수집하고 내년에는 이 결과물들을 바탕으로 사료영인본 10권에 해당하는 총집을 발간할 예정이다.

4·19혁명 기념 민주가족운동회

사업회는 지난달 19일(일) 4월혁명 49주년을 맞이하여 서울 백운초등학교에서 민주화운동 관련 단체와 가족 등을 초청하여 민주가족운동회를 열었다. 축구와 피구, 계주, 줄다리기, 하늘을 날아라 등의 단체전과 도전 골든벨, 투호 게임과 같은 개인전이 다채롭게 진행된 이번 행사에서는, 특히 각 경기마다 팽팽한 긴장감을 느끼게 할 정도의 열기가 발산되어 참가자 모두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되는 자리가 되었다. 이번 운동회에는 사업회 임직원과 그 가족을 비롯하여 유가협, 민가협, 사월혁명회, 민주화운동공제회, 민미협, 전태일기념사업회, 제정구기념사업회, 박종철기념사업회, 5·18항쟁서울기념사업회, 천주교도사빈민회, 흥사단, 푸른공감, 고양시민회 등 약 400여 명이 참여하였다.



